

중년(40~49세)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생활세계: “온전한 개체로서의 삶”

임지애*

초 록

본 질적연구는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선택 및 유지 경험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7명의 참여자의 1인가구 선택 및 유지 경험이 어떠한가에 대한 구술을 통하여 1인가구의 선택 및 유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1인가구의 의사결정 과정을 종합해보면, 1-선택요인(원가족의 직·간접적 영향, 직장의 영향, 1인가구의 가치로서의 자유), 2-보호요인(원가정의 가족 또는 친구(동료, 이웃)의 지지, 내 욕구 또는 우선순위에 집중), 3-위험요인(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불쾌한 관심, 혼자서 다 하는 물리적·감정적 상황, 1인가구의 미래를 위한 재테크 부실, 해당없는 혜택)을 견디며 1인가구를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온전히 독립된 개체로서의 삶을 설계하고 성취해나가는 것이었다. 내부자 관점에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선택 및 유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이론적 모형과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사회 복지적 제언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 비혼, 여성, 중년, 1인가구, 생활세계, 삶

*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hance1004@uos.ac.kr)

I. 들어가며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풍경 속에서 묵은 때와 독을 빼내고자 온 곳,
 숲속 찜질방
 반바지, 반팔T를 입고 들어가는 솔잎 찜방
 “어디 한번 지저볼까~.”
 “뜨듯해서 너무 좋아~.”
 “활 활 타 없어져라, 묵은 나의 친구들이여.”

윗글은 ‘나 혼자 산다’의 전모 씨가 홀로 디톡스 여행을 간 장면이다. ‘나 혼자 산다’는 현재 MBC에서 방영 중인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도 1인가구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본 연구참여자 중 1인은 비혼 40대 남성 1인가구인 전모 씨가 나 홀로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더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고 한다. 나를 위한 순간, 나를 위한 공간, 훌쩍 떠나는 여행, 이 장면에는 자유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온전히 독립된 개체로서의 고군분투한 삶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1인가구로 사는 중년 비혼 여성들의 경험적 이야기를, 그들이 삶의 위험요소를 어떻게 해결하고 때로는 견뎌왔는가에 주목하여 탐색함으로써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수행에는 다양한 입장성(positionality)이 중첩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심층면담을 수행한 조사자일 뿐 아니라, 본인이 중년 비혼 여성 당사자이기도 하며, 다년간 업무를 통해 1인가구 여성들을 지원해 온 사회복지사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voice를 통해 1인가구를 ‘자신만의 주거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한 사람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초소형 가구’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즉 1인가구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일컬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나홀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인식한다. 과거 혼자 사는 삶이 결혼을 전제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일컫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혼자 사는 삶은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그 자체로 1인가구의 삶의 방식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났다. 1인가구의 삶이 자발적 선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와 무관하게 혼자 사는 삶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정영금·윤소영, 2021). 현재 너무나도 다

양한 ‘혼자의 삶’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혼자인 삶’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1인가구는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중년 비혼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에 관한 연구는 청년과 노년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중년 1인가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기혼 중년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비혼의 중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나 1인가구 중년 비혼들은 잠재적 노인 1인가구가 될 가능성을 가지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고, 지속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1인가구 중년 비혼 여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김현화, 2020: 4). 그리고 한국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은 주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구성된 다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인가구가 사회복지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거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미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소외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그들 삶의 경험적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1인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 확산

한국의 가족 단위는 과거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최근에는 1인가구로 급격히 변모되고 있다. 우리나라 1인가구는 1985년 660,941가구로 전체의 6.9%에 불과했으나 2015년 5,203,440가구로 증가하여 전체의 27.2%를 차지하고 2022년 7,502,350가구, 전체의 33.5%가 1인가구로 주된 가구 형태가 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 2035년에는 비혼, 사별, 이혼 등으로 1인가구가 주류가 될 전망이다(장임숙, 2020).

1인가구가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성장으로 창출된 부와 현대 복지 국가들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하나의 요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즉,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혼자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혼자 살기에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1인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또 다른 원인은 전세계에 걸친 역사적 문화변동이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이러한 변동을 “개인주의 예찬”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개인주의 예찬”은 전통적 농업 공동체로부터 근대 산업도시로 진보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보았다. 근대 산업도시에서 개인이 집단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랐고 더욱이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개인들은 가족, 경제, 국가와 같은 근대 사회의 주요 제도의 지원을 받을 때만 ‘독자성’과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학자 앤드류 첼린은 “개인에게 가장 우선하는 의무는 배우자와 자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말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예찬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주의 열풍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 통신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연장이라는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네 가지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 개인이 활약하기에 좋은 여건을 창출하였다(클라이넨버그, 2013). 즉,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결혼이 늦어지고 별거와 이혼 부부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통신혁명으로 혼자 사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풍부하고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대도시의 형성으로 19세기 후반 대도시의 클럽문화, 아파트형 주거, 비교적 자유로운 관습 등이 20세기 후반 도시문화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명연장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래 살기 때문에 노년기를 혼자 보내는 인구는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2. 1인가구와 비혼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960년대, 1인가구에 대한 미국의 초기 연구는 주로 1인가구의 현상에 집중하였으며 1990년대, 1인가구가 급증하는 양상이 서구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확산되면서 한국에서도 1인가구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Hall, Ogden & Hill(1997)은 유럽 전체의 가구 변화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1980년대 영국, 웨일즈, 프랑스에서 1인가구의 증가를 조사하였다. 1인가구는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발견되며, 농촌 및 전통적인 은퇴 지역에 특히 집중되어 있지만, 고령 1인가구는 더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비혼, 노인 인구 증가,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혼자 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결과에서 밝혔다. 또한, 1990년대, 한국, 일본 그리고 남미와 뉴질랜드 등에서도 1인가구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1인가구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국내 연구는 최근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거주(이영행·최민식, 2009; 지은영, 2016), 식사(송혜림·강은주·김민주, 2018; 박지

현·조해련, 2020; 이성림·최일숙·김정훈, 2020), 여가(김현성, 이기영, 김강민, 이교창, 안준형, 황재건, 2019; 정영금·윤소영, 2021) 등에 관한 1인가구로 살면서 겪는 장단점, 노후준비(서명희·김영희·이현옥, 2017; 성혜영, 2021; 정예원·김소연, 2018), 연금(최장훈, 2019), 가족관계(최유정·이명진·최섯별, 2016) 사회적 관계(김현화, 2023; 최유정·이명진·최섯별, 2016),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박민진·김성아, 2022; 박지현·조해련, 2020),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정책(장미혜 외, 2022; 장임숙, 2020; 홍승아 외, 2017) 등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0년대 중반을 전후로 국내 중년 1인가구 연구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주로 식사와 주거(이병호, 2014; 김현경·이성원, 2022),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사회적 배제, 우울(박수선·이무영, 2017; 박미현, 2018; 이미영·이미경, 2023), 사회적 관계와 여가활동(권혁철·김형용, 2017; 김은정, 2017; 서지원·양진운, 2017) 등이 연구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 비혼 연구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째, 비혼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둘째, 패밀리즘과 페미니즘, 싱글리즘 그리고 에이지즘 등의 이데올로기를 비혼과 접목하는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부부 가구에 중심을 둔 가족 형태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1인가구의 증가와 자녀를 둔 부부 가구의 퇴조에 기여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며 비혼에 관한 연구의 증가가 싱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실과 다름을 밝혀가고 있다(Sharp & Ganong, 2011; Addie & Brownlow, 2014).

국내 비혼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대에 이르러 비혼과 만혼의 증가와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내 비혼 연구의 주요 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비혼 경험, 비혼 동기나 원인, 유지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엄구선, 2015; 채재희, 2015). 둘째, 비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김순남, 2016; 이지현, 2015). 셋째, 비혼 여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이다(성미애, 2014). 넷째, 비혼자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연구, 비혼자의 사회적 관계와 친밀성 등에 관한 연구가 다각화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이진숙·이윤석, 2014). 다섯째, 부모와 동거 또는 부모 돌봄을 수행하는 비혼자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박지연, 2012; 황은경·홍달아기, 2013).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 연구는 중년 1인가구의 일부로 혹은 비혼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에 초점화하여 집중화된 연구를 하고자 한다.

Ⅲ. 질적연구설계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경험이 없으며, 무배우자, 무자녀 상태로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혼자 살아가는 40대 여성을 의미한다.

2. 콜레지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앞서 언급한 국외 1인가구 관련 질적연구논문들은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삶을 당사자 중심의 경험적 인식접근을 학술적으로 천착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영향은 국내 사회과학 질적연구의 흐름에도 반영되었다. 따라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삶의 체험적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질적연구의 비전과 원칙에 따라, 특히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체험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질적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을 수행한 점은 매우 부합하다. 이 방법은 실험이나 조직화를 통한 정체의 변형 없이 체험의 함축적 구조를 ‘드러나는 그대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접근 방식으로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연구참여자가 될 수 있다(이남인, 2014: 40에서 재인용). 이남인(2014: 44)이 설명한 콜레지의 자료 분석 절차에 따르면, 먼저 수집한 자료 전체를 검토하여 대략적 의미를 파악한 후, 그와 관련된 연구참여자의 유의미한 진술들을 추출하고, 그 진술들 속에 담겨진 의미들을 발견하는 의미형성 단계를 반복적으로 거친 다음, 주제묶음(clusters of themes)을 정리하여 주제들을 파악한다.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연구주제에 대한 ‘포괄적 기술’을 시도하고 이 기술들에 드러난 근본 구조를 명료한 진술로 바꾼다.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의 견해를 확인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한다. 이러한 절차들은 연구참여자 관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주제인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삶’의 본질적 구조를 밝혀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 자료수집과정

현상학 연구의 대표 자료수집방법인 심층면담이 수행되었다. 참여자 모집

방식, 심층면담 질문 영역 등에 대한 준비로서, 연구자가 속한 대학에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인 재학생 1명과 수료생 1명, 그리고 연구자의 전 직장 동료 1명, 눈덩이 표집으로 참여하게 된 성직자 1명, 공직자 1명, 회사원 2명, 총 7명이 연구참여자로 참여하였다. 참여자 선정기준은 본 연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본인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열린 마음으로 진솔한 응답을 하겠다고 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만이 참여하였다. 예비조사를 포함한 전체 자료수집과정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이루어졌다. 각 심층면담은 참여 및 보상 관련 윤리에 대한 동의서 서명 절차를 거친 후 약 1~2시간 정도 진행하였고 이후 보완적으로 참여자 1명과 추가 면담을 약 30분 정도 진행하였다. 마지막인 7번째 연구참여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자료의 포화(saturation)를 심사숙고하여 자료수집과정을 마쳤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기준년도: 2023년)

참여자 번호	나이	학력	연봉 (단위: 만원)	직업	혼자 산 기간	거주지
참여자1	45	대학 재학 중	비공개	무직	16	서울
참여자2	39	박사 재학 중	4,000 ~ 5,000	전문직	2	서울
참여자3	42	석사 수료	4,000 ~ 5,000	전문직	10	서울
참여자4	45	대졸	500 ~ 1,000	성직자	5	울산
참여자5	49	전문대졸	7,000 ~ 8,000	회사원	4	서울
참여자6	47	대졸	5,500 ~ 6,500	공무원	5	제주
참여자7	49	대졸	5,000 ~ 6,000	회사원	20	인천

4. 연구의 엄격성을 위한 노력

Lincoln & Guba(1986)와 Tracy(2010)의 질적연구의 질적인 엄격성 제고의 중요한 원칙인 신빙성(credibility)와 적용가능성(transferability),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서는 심층면담 직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에 대해 참여자에게 다시 한번 고지하여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연구자로부터 결과보고서를 받을 때 오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리고 나서, 연구에 참여 중인 참여자 1인에게 연구설계 및 논문작성에 이르기까지 내부자 관점에 입각한 의견 및 제안을 수시로 제공받았다. 그리고 논문 최종 단계에서 멤버체킹(member checking)차원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논문 원고를 발송하여 원고 관련 제안이

나 오류 수정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통해 연구의 엄격성 제고 과정을 마쳤다.

IV.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참여자들의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삶의 경험을 표출하는데 고유한 지점을 3가지 요인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든 요인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1인가구 삶의 총합을 이루고 있다. 각 차원의 주요 의미를 설명할 때는 먼저 관련된 참여자의 상징적 구술을 뽑아 제시한 후 저자 해석과 연관된 추가 구술들을 다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참여자 진술의 중략이 필요한 경우 말줄임표(...), 참여자 진술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큰 따옴표(“”)를, 진술 끝에는 그 주체를 뜻하는 참여자 번호(위 <표 1>과 일치)를 삽입하였다.

1.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 선택 및 유지 경험”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1인가구 선택 및 유지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이다. 그리고 하위질문은 “1인가구 선택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1인가구 삶의 위험요인, 보호 요인은 무엇이라고 인식하는가?”라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자는 심층면담을 시작하면서 1인가구 선택 및 유지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답변했던 각 참여자의 구술 모음을 1인가구 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1인가구 삶의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으로 구분하였다. 1인가구 삶의 선택 의사결정 요인이란 1인가구를 선택하도록 만든 계기이며 세 차원, 즉 1-원가족의 직·간접적 영향, 2-직장의 영향, 3-1인가구의 가치로서의 자유-의 주제묶음으로 활용되었다. 1인가구 삶의 유지를 위한 보호요인은 1인가구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두 차원, 즉 1-원가정의 가족 또는 친구의 지지, 2-내 욕구 또는 우선순위에 집중-의 주제묶음으로 활용되었다. 1인가구 삶의 유지에 대한 위험요인은 1인가구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네 차원, 즉 1-혼자사는 여성에 대한 불쾌한 시선, 2-혼자서 다 하는 물리적·감정적 상황, 3-1인가구의 미래를 위한 재테크 부실, 4-해당없는 혜택-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절차에 따른 주제묶음으로 활용되었다. 각 차원의 주요한 의미 코드들은(<표 2> 참고) 참여자 진술과 함께 연구결과로서 해석되어 설명될 것이다.

〈표 2〉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 선택 및 유지 의사결정 과정(주제묶음(8차원), 참여자진술, 주요의미)

하위질문 분류	주제묶음	참여자 진술코드	주요 의미 코드
I. 선택 요인	1-원가족의 직·간접적 영향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아볼 기회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언니의 결혼”	- 부모와 사별 - 부모의 희망 - 형제자매의 결혼
	2-직장의 영향	“근무지에서 혼자살 수 있는 집을 한 채 배정 받아”	- 근무지의 독채 사용
	3-1인가구의 가치로서의 자유	“혼자 살면서 좋은 거는 일단 자유롭다는 거” “온전히 그냥 제 시간을 다 저 혼자 오롯이 보낼 수 있는 거” “나만의 공간에서 보다 좀 자유롭게 지내는 것”	- 혼자 사는 자유 - 혼자 오롯이 보내는 시간 - 나만의 독립된 공간
II. 보호 요인	1-원가정의 가족 또는 친구(동료, 이웃)의 지지	“집도 알아봐야...친구가 잘 알아봐 줬고” “1인가구 겪는 설움...가족이 있으니까” “언니도 있고...같이 여행도...모임도 하고” “친구나 지인이...저녁을 같이 먹는...아팠을 때 관심” “생활적인 면이며 건강이며 ... 일적인 얘기도 ... 많이 도움을 받고 살지.” “도움을 요청하면 달려올 수 있는 이웃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 가족이 지지가 되어주는 - 친구가 위로가 되어주는 - 동료가 도움이 되어주는 - 이웃이 달려와 주는
	2-내 욕구 또는 우선순위에 집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니까 좋은데”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또 정말 갑자기 여행을 가고” “나 혼자 그냥 수행하고 나 혼자 공부하고” “넷플릭스나 영화 보고 싶으면 보고...”	- 타인에게 맞출 필요없는 - 내 욕구에 충실한 - 내가 뭘해도 타인과는 무관한
III. 위험 요인	1-혼자사는 여성에 대한 불쾌한 관심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라는 거” “1인 캡스도 설치하는 이유가” “불편한 시선이... 왜 나의 삶에 관심을 갖지” “왜 혼자 사냐고를 왜 굳이 물어볼까,” “뭐가 모자라서 결혼을 못했나 그런 식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희롱적 발언 아닌 발언을...직장 내에서도 혼자서 뭐 하니...술 쳐먹고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나이 든 여자가 타깃이래요...쉽게 보는 느낌”	- 혼자 사는 무서움 - 불편한 사회적 시선 - 불편한 물음 - 쉽게 보는 느낌
	2-혼자서 다 하는 물리적·감정적 상황	“혼자서 다 해야 된다” “다 저의 몫이니까.” “그 공허함...더 그게 처절하게 느껴지는” “밥 먹을 때 귀찮아서 안 먹게 되는”	- 다양한 역할을 하는 어려움 - 보다 강한 외로움 - 귀찮은 혼밥

하위질문 분류	주제묶음	참여자 진술코드	주요 의미 코드
	3-1인가구의 미래를 위한 재테크 부실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재테크는 주식을” “저축을...보험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나 장례 치러줄...최소한의 장례비는 남겨놔야” “빌라에 재건축 바라보고 하나 해놓기는 했는데”	- 꿈도 못 꿀 재테크 - 내집 마련을 위한 노력
	4-해당없는 혜택	“요즘에는 중장년한테 혜택이 더 없고” “전혀 없어요.” “알고 있는 정도로 끝인 것 같아요.” “정부 지원은 젊은 청년들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싱글세라고...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연금 까지 생각하면 저희한테 뜯어가는”	- 대상층 확대 필요 - 상향평준화 혜택 필요 - 청년위주정책 탈피 필요 - 싱글세 걷고 노후 책임져주는 정책 필요

2.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 선택 및 유지 경험”에 대한 기술

1) 선택요인

참여자들에게 1인가구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참여자들을 둘러싼 직·간접적 환경적 영향에 의하여 선택되었다. 참여자의 1인가구 선택 의사결정에 원가족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이 1인가구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1인가구를 선택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1) ‘원가족의 직·간접적 영향’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있어야 했기 때문에”(1)

“엄마가 너 어차피 지금 당장 결혼할 거 아니면 혼자 살아볼 기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혼자 나가서 살면 진짜 편하고 좋대 하면서”(2)

“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같이 살다가 제가 이제 혼자 살게...”(3)

“언니랑 같이 살다가 언니 결혼 때문에”(7)

참여자들의 1인가구 선택의 계기는 상황에 따라 달랐다. 1인가구 선택이 원가족의 직접적 영향인지, 간접적 영향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참여자 1은 어머니의 사망, 참여자 3, 5는 동생의 결혼으로, 참여자 7은 언니의 결혼으로

원가정의 직접적 영향으로 1인가구가 되었다. 참여자 2는 혼자서 살아보라는 어머니의 권유가 계기였으나 본인의 즉흥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원가정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1인가구가 되었다.

(2) ‘직장의 영향’

“지금 근무지로 옮기면서 각각 집을 한 채 줘서 거기서 그냥 살 수가 있는 거죠.”(4)

“관사 배정 시, 집 한 채를 혼자 쓰게 돼서”(6)

참여자 4, 6은 근무지 변경과 함께 소속된 교당과 기관으로부터 독채를 배정받음으로써 1인가구가 되었다.

(3) ‘1인가구의 가치로서의 자유’

“혼자 살면서 좋은 거는 일단 자유롭다는 거....그냥 생각이 많을 때 혼자 있고 싶을 때 ...”(1)

“가끔...일단은 좋은 점은 온전히 그냥 제 시간을 다 저 혼자 오롯이 보낼 수 있는 거... (중략) ... 내 개인적인 공간이 확보되는 거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나 만족감이”(2)

“좀 독립된 나만의 공간에서 보다 좀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더 좋아서 이제 1인가구를 계속 선택하구 있다 ... (중략) ... 내가 결혼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어떤 필요성보다 훨씬 더 혼자 사는 데 대한 가치나 어떤 의미가 더 높기 때문에”(3)

참여자들은 독립된 주거공간과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1인가구로서 누리는 자유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기에 1인가구를 지속적으로 선택해가고 있었다.

2) 보호요인

참여자들에게 1인가구 보호요인은 1인가구에게 삶의 지지와 도움이 되는 요인이면서 삶의 만족감을 주는 요인이다. 1인가구는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동료, 이웃)의 정서적·물질적 지원과 지지를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해결해 나가고 있었으며, 1인가구는 ‘내 욕구 또는 우선순위에 집중’함으로써 1인가구로서의 만족감을 채워나가고 있었다.

(1) '원가정의 가족 또는 친구의 지지'

“집도 알아봐야 되고 친구가 잘 알아봐 줬고 그래서 이제 개네 집 근처에 도봉구로 갔죠.”(1)

“1인가구가 겪는 그런 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가족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네요 ... (중략) ... 동생이 일정이 없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동산을 가봤고 ... (중략) ... 이것저것 챙겨 반찬이나 이런 거 엄청 챙겨주시고 아빠가 오토바이로 가끔 뭐 같은 것도 갖다 주시고 집에서 특식을 먹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먹을래라고 해가지고 갖다 주시고, 뭔가 저에 대한 이 마음이 더 애뜻해지신 것 같아요. 아빠가 근데 그게 느껴져요... (중략) ...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는 언니도 있고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도 있고 아직 ... 같이 여행도 다니고요, 모임도 하고 있어요.”(2)

“이제 집 근처에 친구가 이제 있고 또 친구나 지인이 있어서 수시로 서로 이제 왕래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낸다던가 저녁을 같이 먹는다면가 또는 아팠을 때 또 조금은 관심을 가져준다던가 하는 것들이 더 1인가구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3)

“근처에 사는 동료 보고 와서 고쳐줘. 이러면 또 와서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적인 면이며 건강이며 또 같이 놀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일적인 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고 살지.”(4)

“멀리 있는 가족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이웃, 좋은 이웃 사촌을 만나는 건 행운이다. 로또다 ... (중략) ... 도움을 요청하면 달려올 수 있는 이웃이 처음으로 생겼어요.”(7)

참여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개입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친구들은 학창시절 친구, 직장동료 등으로 오랜 세월 함께 해 온 사람들부터 최근에 생긴 이웃사촌까지 다양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정서적 돌봄을 필요로 할 때, 가족 또는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정서적으로 지원받고 있었다. 친구들이 이사할 집을 알아봐 준다거나 가족이 부동산 계약에 동행하기도 하고 아플 때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였다. 참여자 2는 1인가구로서의 설움으로 혼밥을 언급하였다. 그녀에게 혼밥은 그냥 끼니를 채우는 것이라고 한다. 밥을 지어 함께 나누는 것이 끼니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과 친구는 1인가구에게 매우 의미있는 존재였다.

(2) ‘내 욕구 또는 우선순위에 집중’

“아무래도 내가 누구한테 맞추면서 살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니까 좋은데... (중략) ...그냥 산도 혼자서 다니는 게 훨씬 편하고 라이딩을 자전거 라이딩하는 거 하거나 이런 게 좀 더 편한 거 같고”(1)

“내가 내 삶을 조금 영위하면서 남자친구가 있고 그러다가 좋으면 50세에도 결혼할 수 있고”(2)

“다른 사람이나 같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또 정말 갑자기 여행을 가고 또 여행 가고 이런 것처럼 내가 뭘 해도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3)

“나 혼자 그냥 수행하고 나 혼자 공부하고 그냥 그런 것 자체가 편한 것 같애.”(4)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거 자고 싶을 때 자고 넷플릭스나 영화 보고 싶으면 보고 나가서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그냥 일어나서 먹고 싶은 거 먹고”(5)

참여자들은 나의 욕구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산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1인가구는 다른 가족을 배려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다인가구는 일종의 공동체로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 1인가구는 이러한 규칙에서 자유롭다. 참여자 2, 7은 자신을 위한 삶을 충실히 살다가도 언제든지 원하면 다인가구의 삶을 선택가능하다는 개방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3) 위험요인

참여자들에게 위험요인은 1인가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되는 요인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이러한 위험요인을 견디면서 때로는 해결해 나가면서 1인가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비혼 여성 1인가구는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이 현실이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있었다. 물리적, 감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에게 혹은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비혼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모돌봄의 1순위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재테크를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며 제도적인 혜택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1)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불쾌한 관심’

“집에 들어갈 때도 그냥 괜히 한번 주변 한 번 더 둘러보게 되고 ...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라는 거를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1)

“혼자 사는 여자가 갖는 약간 불안함 ... 그 뭐지 1인 캡스도 설치하는 이유가 그거거든.”(3)

“나는 불편한 시선이, 그런 시선을 느낄까 봐 불편해 왜냐면 ... 집주인이 내가 혼자 사는지 몰랐다 ... 왜 나의 삶에 관심을 갖지”(3)

“요즘 워낙 사회가 좀 이제 여자들이 성 문제로 조금 불안한 이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는 낯뜨럽지. ‘왜 혼자 사냐’고 왜 굳이 물어볼까”(4)

“그때 당시에 서른여섯 먹도록 왜 시집을 안 갔어 그런 얘기를... 조금 뭐가 모자라서 결혼을 못했나 그런 식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구나.”(5)

“그런 약간 희롱적 발언 아닌 발언을 조금씩 하고 그랬지... (중략) ...이상한 농담으로 웃으면서 던져요...그래가지고 내가 성희롱으로 집어넣어버렸지... (중략) ...그러니까 혼자 사는 나이 든 여자가 타깃이래요. 뭔가 쉽게 ... 쉽게 보는 느낌....”(6)

참여자들은 여성 1인가구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범죄자가 따라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성 1인가구는 특히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범죄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캡스나 cctv를 설치하는 참여자도 있었고 유흥시설이 적고 공동현관 입구와 집앞 문에 cctv가 있는 집을 택하여 거주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성희롱 및 불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행위도 벌어지고 있어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쉽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대처능력이 필요하다. 참여자 3은 “환경적인 안정성이 사실 여자 혼자 사는 1인가구로서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2) ‘혼자서 다 하는 물리적·감정적 상황’

“집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든가 힘을 써야 되는데 내가 혼자서 못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1)

“근데 청소하고 이런 것도 너무 싫고요 그것도 다 저의 몫이니까.”(2)

“그 공허함이란 걸 느끼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 1인가구로서의 그런 다인 가구로서의 느끼지 못하는 ... 더 그게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야”(1)

“밥 먹을 때 귀찮아서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2)

1인가구를 꾸려가는 참여자들은 혼자서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집을 보수하고 가사일을 전담하고 생계비를 버는 등의 한 가정을 꾸리는 모든 역할을 혼자서 해내고 있다. 1인가구에게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은 소중하지만 때때로 밀려오는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옆에 없기 때문에 더 외로운 외로움이 있다고 한 참여자는 진술하였다. 혼자서 해먹는 밥이 귀찮아 먹지 않을 때가 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3) ‘1인가구의 미래를 위한 재테크 부실’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꿈도 못 꿩요 ... 보험으로 해서 연금을 그래서 한 달에 지금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게 있고 얼마 한 20, 20만 원 좀 넘는 것 같은”(1)

“근데 재테크는 주식을 하고 있어요. 아빠의 권유.... 아빠가 이거 이거 사라 그러면 그거 사고요. 그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를 성향상 좀 잘못하더라고요.”(2)

“저축을 정기적으로 적금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보험은 이제 뭐 암보험이나 아니면 연금형 보험, 이렇게 하나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 ...”(3)

“혼자 있다가 그냥 조용히 독거노인으로 죽으면 ... 누군가 그래도 나 장례 치러줄 보험금은 그래도 조금 최소한의 장례비는 남겨놔야겠다.”(5)

“빌라에 이제 재건축 바라보고 하나 해놓기는 했는데, 그런 거 내 집 하나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6)

참여자 모두 1인가구의 미래를 대비한 재테크라고 하기에는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보험 1~2개와 적금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다. 참여자 중 일부는 자기주도적이고 계획적인 1인가구를 위한 경제적 대비가 부족한 실정 이었고 전월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 중 재테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 외곽에 재개발을 기대하고 집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이들은 주택정책에서 배제된 1인가구가 서울 안에 집을 마련하기란 너무 벅찬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여자 모두 1인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저축액 이상의 저축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참여자 5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현재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물 먹고 밥만 한 끼 먹고 살아도 한 달에 200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200을 저축을 못하는데 그 미래를 다 온전하게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4) ‘해당없는 혜택’

“오히려 요즘에는 중장년한테 혜택이 더 없고 청년한테만 많이 되니까”(1)

“전혀 없어요. 나이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2)

“알고 있는 정도로 끝인 것 같아요.”(3)

“정부 지원은 젊은 청년들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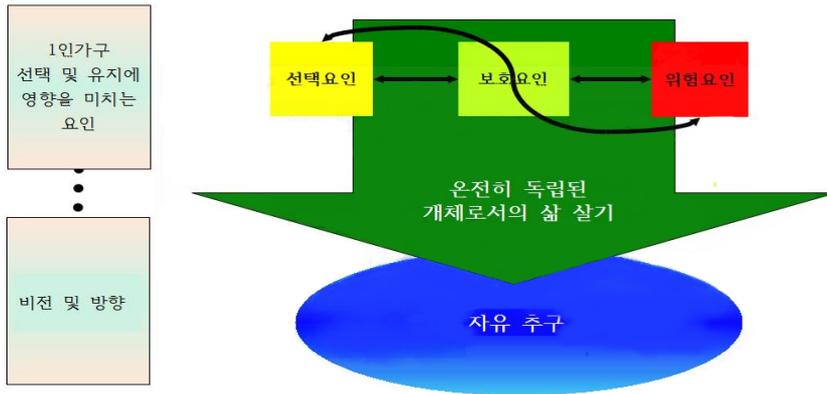
“싱글세라고..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연금까지 생각하면 저희한테 뜯어가는”(5)

참여자들은 1인가구의 제도적 지원을 받고 싶어서 알아보았으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1인가구 혜택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녀들은 1인가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잘 되어있다면 그 제도를 활용하면서 1인가구의 삶을 잘 유지해나가고 싶다고 하였다.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구축된다면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결혼을 안 한 이유 중에 ... 뭔가 안정적인 거를 만들어 놓고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이었는데 ... 경제적으로 좀 더 1인가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된다면은 ...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결혼율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 ... 생각이 돼서”(3)

참여자 3은 결혼할 의사가 있는 1인가구가 많지만 결혼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1인가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면 혼인율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혼부부 정책 및 양육지원 정책의 개선의 필요성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의 강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혼인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1인가구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의 포괄적 기술의 기본 구조인 중년 비혼 여성의 1인가구 선택 및 유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삶에 대한 근본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선택 및 유지 경험 모형

먼저 참여자들이 구술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삶에 대한 선택과 유지 과정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진술해 보면 “1-선택요인(원가족의 직·간접적 영향, 직장의 영향, 1인가구의 가치로서의 자유), 2-보호요인(원가정의 가족 또는 친구의 지지, 내 욕구 또는 우선순위에 집중), 3-위험요인(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불쾌한 관심, 혼자서 다 하는 물리적·감정적 상황, 1인가구의 미래를 위한 재테크 부실, 해당 없는 혜택)이 상호작용하면서 1인가구의 삶이 끊임없이 재선택 되어지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독이라는 거를 또 버텨낼 수 있어야지. 1인가구가 되는 거고 그거를 못 견디면은 언제라도 1인가구가 아니라 동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그 사람들과 같이 살거나 가족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요?...(중략)...시간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그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중략)... 스스로 단단해지는 법을 알아가는 거죠...(중략)...1인가구 그냥 처음부터 계획하진 않았지만 삶의 물결처럼 그래서 삶의 흐름대로 살다 보니 굳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흘러온 삶이지만, 후회하지 않아요.”(7)

본 연구 참여자 7의 구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년 비혼 여성들은 1인가구로서의 삶을 확정적이라거나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1인가구로서의 삶과 관련하여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다른 개체와의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와 적응, 축적되는 경험에서 오는 노련함을 통해 성숙되어가는, 온전한 개체가 되어가는 진행형의 삶 가운데 있음을 드러냈다.

궁극적으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삶의 비전과 방향은 그들의 구술대로 “온전히 독립된 개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며 좀 더 본질적으로 “자유”

를 추구하는 여정이었다.

V. 논의 및 결론

1인가구 이야기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은 1인가구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1인가구가 자유라는 가치를 중요시함을 시사하였다. 이 사실은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도 확인되었는데, 먼저 주요한 이론적 논의 및 정책적 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 당사자들의 구술에 근거하여 그들의 삶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환경과 상황은 서로 달라도 그들 모두가 온전한 개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한다는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한 모형([그림 1]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선택 및 유지 경험 모형)은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선택요인, 보호요인, 위협요인)들이 환경 속 개인인 그들의 심리사회적 욕구와 관련된 문제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보호요인과의 상호작용과 위협요인과의 분투를 포괄하며, 통합적 차원에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전망(온전히 독립된 개체로서의 삶) 및 방향(1인가구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본질적 의미를 보여준다. 위 이론적 모형은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삶의 선택 및 유지 과정과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비전과 방향을 내부자 관점에 근거하여 작화한 최초의 이론적 모형으로서 함의를 갖는다.

둘째, 싱글(미혼, 사별, 이혼)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드파올로(2012)는 결혼이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아온 비혼들이 정형화되고 낙인찍히고 폄하되고 무시당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잘 꾸려나가고 있으며 그들 안에는 심리적인 강인함이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보완이다. 참여자들의 경험처럼,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는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불쾌한 관심', '혼자서 다 하는 물리적·감정적 상황'을 견딜과 극복을 통하여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노련함과 회복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으며 비록 함께 살지는 않지만 '원가정의 가족 또는 친구(동료, 이웃)의 지지'가 그들의 삶에 큰 힘이 되어주었

다. 이러한 과정들이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가 ‘온전히 독립된 개체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구술을 통해 비혼의 상태가 임시적일 수도, 지속적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비혼 상태의 유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들의 삶 자체가 임시적인 삶이라거나 결혼을 염두한 유보적인 삶이 아님을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셋째, 클라인베티그(2013)는 1인가구 증가에 대해 경계하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되는 사회적 변화들(개인주의의 부상, 여성의 지위 향상, 도시의 성장, 통신기술의 발달)이 역진할 가능성이 낮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인가구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적 혜택이 1인가구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자유로운 삶이 주는 만족감이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임을 참여자들은 밝히고 있으며 참여자들 모두 자신의 경력이나 학업을 꾸준히 키워나가며 자기계발을 해나가고 있었다. 또한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었으며 비약적인 통신기술의 발달을 이루었다. 이는 한국의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부 중심의 핵가족을 위주로 마련된 사회제도로 인하여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다인가구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적 혜택이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에게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외로움 해소 및 1인가구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의 역량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박민진·김성아(2022)의 1인가구에 대한 연구 결과, 저소득층에는 공공부조, 지역 복지시설 등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하는 데 반해, 중·고소득 1인가구의 경우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므로 스스로 구축한 경제적·심리적·인적 지지체계가 없다면,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기 상태에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음을 밝혔다. 즉,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기 상태에 놓여있는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 지원과 심리적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지원·양진운(2017)은 1인가구가 여가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1인가구의 여가생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자유롭게 보내는 여가가 1인가구에게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나 이웃 등과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지지 자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의 질과 여가의 질적인 면까지 고려

하는 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혼 중년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주택 환경 개선(방범창, 가로등, CCTV 설치 등)이 필요하고 보안이 잘 된 원룸형 주택을 보급하며, 위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장치 등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장미혜 외(2022)의 연구에서도 여성 1인가구가 범죄 노출에 대한 염려가 매우 높음을 밝혔고 그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보안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긴급보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가 노후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박건·김연재(2016)의 서울시 중장년 여성 1인가구에 관한 연구에서 근로소득이 클수록 노후준비정도가 잘 되어 있어서 향후 노년 여성 1인가구 내, 경제 불평등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참여자들이 노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고 밝히고 있었다. 선행 연구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 모두 재테크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노후준비가 부실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노후준비를 위한 재테크의 수준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의 다가올 노년기의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거시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과 주거비 및 금융관련 지원 등이 있으나 대체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지원정책은 중장년,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즉, 주거 및 고용지원정책에 있어서 1인가구만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건강·돌봄지원정책은 노인 1인가구에 치중되어 있다. 여성 1인가구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가 대표적이며, 구체적으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알림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고 저녁 취약시간에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귀가를 위한 '안전귀가지원서비스'와 주로 1인가구 여성들이 거주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가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무인택배보관함' 운영, 위급한 상황에 휴대폰 등을 통해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장임숙, 2020). 이상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거시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과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진·김연재(2016)의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삶을 보편적인 삶으로, 장기 지속적인 삶의 형태로 존중하는 사회문화조성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면서 서울시가 서울가족학교를 통해 1인가구 및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이해·존중을 돕는 시민교육과 캠페인에 적극적이며, 1인가구 등 가족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함을 밝혔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기 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까지의 홍보 참여 주체의 폭을 넓혀야 하고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미래에 다가올 1인가구 보편화 및 중심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밝힌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제언을 근거로 후속연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40대 7인의 표집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 있어, 더 많은 수의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한다면 심층적 분석과 대표성 모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1인가구에 대한 포괄적 연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초점화된 주제로서 다양한 분야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셋째,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 안에서도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가지기에 이들에 대한 양적연구보다는 질적연구의 측면에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에 대한 다차원적인 질적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넷째, 중년 비혼 여성 1인가구뿐만 아니라 중년 비혼 남성 1인가구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중년 비혼 남성 1인가구에 대한 초점화되고 다양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혁철·김형용(2017). “홀로 살아야 행복한, 중년 남성의 삶”. 사회과학연구. 제 24권 제3호. 267-290.
- 김순남(2016). “이성에 비혼여성으로 살아가기- 지속가능한 비혼, 젠더, 친밀성”. 한국여성학. 제32권 제1호. 181-217.
- 김은정(2017). “청·중년층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제13권 제2호. 45-60.
- 김현경·이성원(2022). “중년남성 1인가구의 주거특성과 주거만족도 간의 관계”. 韓國地域開發學會誌. 제34권 제2호. 165-194.
- 김현성·이기영·김강민·이교창·안준형·황재건(2019). “중장년층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및 여가생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여가학연구. 제17권 제1호. 73-94.
- 김현화(2020). 1인가구 중년 비혼여성의 관계적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23). “1인가구 40, 50대 비혼여성의 관계성에 관한 현상학 연구”. 인문사회 21. 제14권 제2호. 63-74.
- 김혜정·박지영(2021). 1인가구 영향평가 지표 개발.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드파올로, 벨라(2012). 싱글리즘(Singlism): 나는 미혼이 아니다 나는 싱글 병글이다. 박준형(역). 안양: 슈냐(DePaulo, Bella, *Singled Out: How Singes Are Stereotyped, Stigmatized, and Ignored, and Still Live Happily Ever After*. New York: St. Martin's, 2006).
- 박건·김연재(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박민진·김성아(2022).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保健社會研究. 제42권 제4호. 127-141.
- 박수선·이무영(2017). “발표3 - 중·장년 1인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017권 제11호. 139-149.
- 박지연(2012). 비혼 딸의 부모 돌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지현·조해련(2020). “미혼 성인의 혼밥 유무에 따른 비만, 우울과 삶의 질 차이에 대한 융복합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3호. 101-107.

- 서명희·김영희·이현옥(2017). “1인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718-727.
- 서지원·양진운(2017). “중년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여가시간사용 결정요인 분석.”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제21권 제3호. 77-95.
- 성미애(2014). “40, 50대 비혼여성의 자유로운 비혼의 삶, 불안한 노후, 그리고 정책으로부터의 소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9권 제2호. 145-168.
- 성혜영(2021). “중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노후준비.” 한국가족복지학. 제26권 제1호. 61-79.
- 송혜림·강은주·김민주(2018).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사용 연구 - 성별·취업 여부에 따른 식사와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제22 권 제2호. 45-63.
- 염구선(2015). 기독교 중년 비혼여성의 결혼과 삶에 관한 생애사 연구-사역경험이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성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남인(2014). 현상학과 질적연구. 경기도: 한길사.
- 이미영·이미경(2023). “청·중년층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인식 비교: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제14권 제2호. 87-96.
- 이병호(2014). 중장년층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다인 가구와의 비교. 보건사회 연구. 제34권 제3호. 348-373.
- 이성림·최일숙·김정훈(2020).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역량-식사행태와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Human Ecology Research(HER). 제58권 제4호. 483-496.
- 이영행·최민섭(2009). “1인가구의 주거선택요인이 원룸 선호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제7권 제2호. 155-174.
- 임유진·박미현(2018). “1인가구 중년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1호. 187-206.
- 이지현·김현주(2015). 근거이론에 기초한 40대 비혼 남성의 비혼유지 과정.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0권 제2호. 101-134.
- 이진숙·이윤석(2014). 비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한국인구학, 37(4), 1-24.
- 장미혜·정연주·박상민·홍세은·정다운·정지연(2022).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 (I):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임숙(2020). 1인가구의 젠더 특성과 정책방안,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1호. 373-397.
- 정영금·윤소영(2021). 여가활동과 행복의 관계 분석을 통한 1인가구의 여가관련 산업 방향 연구, 여가학연구. 제19권 제4호. 17-30.
- 정예원·김소연(2018). “30-40대 1인가구의 노후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관한 탐색적 고찰.”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제2018권. 1-5.
- 지은영(2016). “청년 1인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한 쉐어하우스 거주 실태와 요구도: 입주자와 잠재 수요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Human Ecology Research (HER). 제54권 제6호. 589-598.
- 채재희(2015). 중년 미혼 여성의 삶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통합치료연구. 제6권 제2호. 5-28.
- 최유정·이명진·최셋별(2016). “가구형태와 사회적 관계의 객관적, 주관적 측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1인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1권 제2호. 25-51.
- 최장훈(2019).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연금가입 비교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1권 제3호. 1409-1423.
- 클라인넨버그, 에릭.(2013).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 안진이 역. 서울: 더퀘스트 (Klinenberg, E. *Going Solo : 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New York: Penguin Press, 2012)
- 홍승아·성민정·최진희·김진욱·김수진(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은경·홍달아기(2013). 중년기 비혼여성의 노부모 부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07-308.
- Addie, E., & Brownlow, C. (2014). Deficit and asset identity constructions of single women without children living in Australia: An analysis of discourse. *Feminism & Psychology*, 24(4), 423-439.
- Colaizzi, F. U.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 R., Ogden, P. E., & Hill, C. (1997). The pattern and structure of one-person households in England and wales and Fr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 IJPG*, 3(2), 161-181.

- Lincoln, Y. S. & Guba, E. G.(1986). But is it rigorous? Trustworthiness and authenticity in naturalistic evaluation, In David D. Williams(ed.). *Naturalistic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73-84.
- Sharp, E. A., & Ganong, L. (2011). “I’m a loser, I’m not married, let’s just all look at me”: Ever-single women’s perceptions of their social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32(7), 956-980.
- Tracy, S.(2010). Qualitative quality: Eight “Big-Tent” criteria for excellent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6(10), 837-851.

Abstract

**The world of life of middle-aged(40-49 years old) unmarried female one-person households :
“Life as a complete entity”**

Ji Ae, Lim*

This qualitative study examined the selection and maintenance experience of middle-aged unmarried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In the course of in-depth interviews, the seven participants gave oral descriptions of their experiences in choosing and maintaini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ynthesiz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single-person households, focusing on thre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found tha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single-person households was based on 1-choice factors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the original family, influence of the workplace, and freedom as a value of the single-person household). 2-Protective factors (support from family or friends (colleagues, neighbors) of the original family, focusing on my own needs or priorities), and 3-risk factors (unpleasant attention to women living alone, physical and emotional situations of doing everything alone, lack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futur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unapplicable benefits). Ultimately, it was to pursue a free life as a middle-aged, unmarried woman in a single-person household, but to design and achieve a life as an inherently completely independent individual. From an insider's perspective, a theoretical model for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selection and maintenance of single-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unmarried women and social welfare suggestions to reduce the risk factors of single-person households of middle-aged unmarried women were proposed.

Keywords : single, unmarried female,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 the world of life, life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Seoul